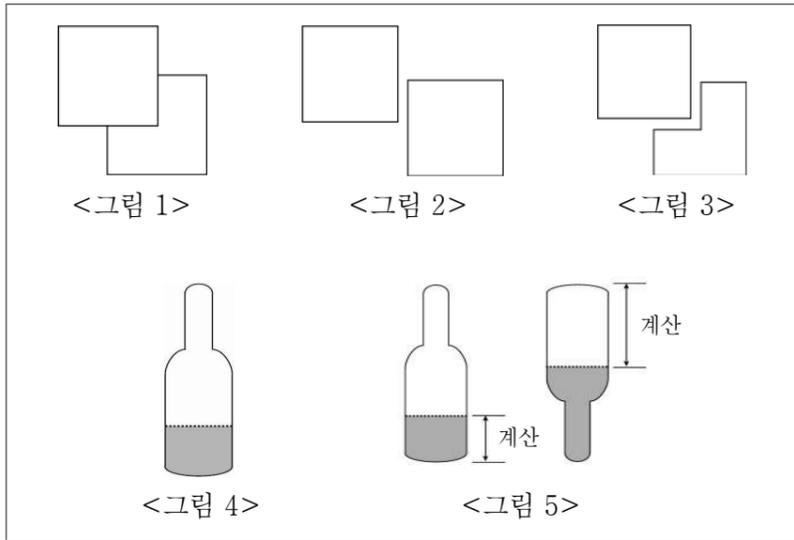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아빠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록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꼭 풀어내겠다는 의지야.
- ② 주변의 자연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할 줄 아는 능력이야.
- ③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는 태도야.
- ④ 일상에서 접하는 일들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 보려는 자세야.
- ⑤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점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실험 정신이야.

2. (물음)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패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 ② 성공을 추구하는 풍토가 확산될수록 실패가 줄어든다.
- ③ 실패학은 실패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문이다.
- ④ 실패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⑤ 자신의 실패를 감추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3. (물음) ‘갯’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은?

- ① 발효될수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김치
- ② 다채로운 색상과 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한복
- ③ 무욕의 정신을 보여 주는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백자
- ④ 실용성과 내구성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수공예 가구
- ⑤ 여성적 섬세함과 화려한 장식성이 어우러진 전통 자수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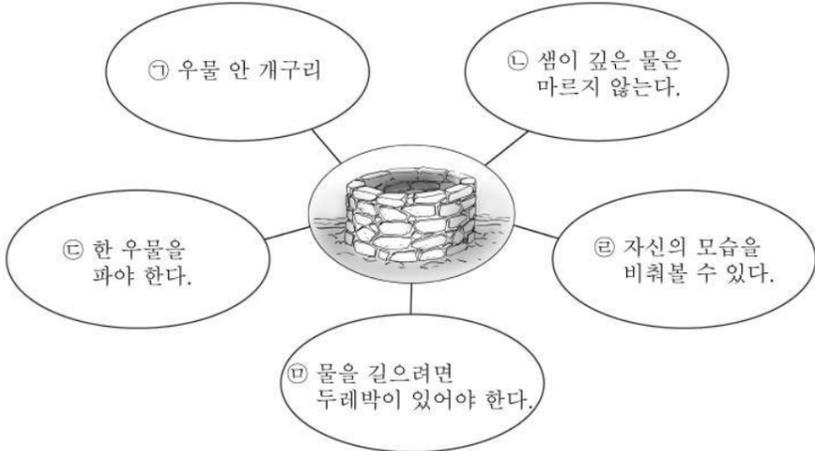
- ① 사랑 나눔 행사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② 동아리의 특성을 살리는 사랑 나눔 행사가 되어야 한다.
- ③ 사랑 나눔의 정신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확산해야 한다.
- ④ 시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복지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5. (물음) 토의 참가자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학생 발표자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남학생 발표자는 상대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③ 여학생 발표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④ 여학생 발표자는 감정에 호소하며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 ⑤ 여학생 발표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우물'을 보고 떠올린 생각을 바탕으로 '학문 탐구'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편협한 학문 탐구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 : 적성에 맞는 학문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 : 전문 분야를 정하여 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 ④ ㉣ : 자신의 학문적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 :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7. <보기>는 '귀농(歸農)'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최근 귀농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2000년 한 해에 769가구에 불과하던 귀농 가구가 2008년에는 2,218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귀농 유형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액 연봉과 번듯한 직장 등 도시의 화려한 삶을 뿌리치고 스스로 농촌을 선택하는 귀농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이들을 '생태적 귀농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바쁘게 사는 도시 생활 대신 적게 벌고 덜 쓰면서 흙을 밟고 사는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 ○○ 신문 -

(나) "귀농, 이런 생각하면 실패한다."
 ○ 농사도 머리만 잘 쓰면 큰돈을 번다.
 ○ 농작물 선택이나 재배, 판로 개척은 쉽다.
 ○ 전원생활은 도시 생활보다 훨씬 낭만적이다.

(다) 연평균 문화 공연 관람률 (2008년, 단위: %)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도시	29.4	7.6	11.3	9.7	42.0
농촌	51.1	10.8	9.7	7.0	21.4

- ① (가) : 최근 귀농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 ② (나) : 귀농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 ③ (다) : 귀농 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 ④ (가)+(나) : 귀농 후의 생활에 대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나)+(다) : 농촌 문화의 발전을 위해 도시의 문화 예술인들이 귀농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8. <보기>는 '한식의 세계화 방안'이라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 한식 세계화의 현주소

II. 본론
 1. 한식 세계화의 걸림돌
 가. 한식 세계화의 필요성 ㉠
 나. 한식의 상징적인 이미지 부재
 다. 한식에 대한 홍보 부족
 라. 표준 조리법의 개발 미흡
 마. 한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미비

2. 한식 세계화를 위한 방안 ㉡
 가. 한식의 상징적 이미지 개발
 나. 외국의 우수한 음식 문화 사례 소개 ㉢
 다. 한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류 시스템 구축
 라. 한식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

III. 결론
 - 한식과 세계 음식 문화의 접목 ㉤

- ①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I'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 ② ㉡에는 'II-1-라'의 해결 방안으로 '한식의 현지화를 위한 전략 메뉴 개발'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 ③ ㉢은 'II-1-다'를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한식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교체한다.
- ④ ㉣은 'II-1'과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식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계 기관의 지원책 마련 필요'로 수정한다.

9. <보기>는 '타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장의 예이다.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차례대로 타세요.
 ㄴ. 물 마른 개울을 타고 산속 깊이 올랐다.
 ㄷ. 동네 아이들은 야밤을 타 닭서리를 했다.
 ㄹ. 착한 일을 한 덕분에 방송을 타게 됐다.
 ㅁ.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았다.

- ① ㄱ의 '타세요'는 문맥상 '~에 몸을 엮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승차하세요'로 바꾸어 써도 되겠군.
- ② ㄴ의 '타고'는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의 '타고'와 의미가 동일하군.
- ③ ㄷ의 '타게'는 '전과 따위에 실려 퍼지다'라는 뜻이겠군.
- ④ ㄴ과 ㄷ을 보니, '타다'는 공간성을 가진 말이나 시간성을 가진 말 모두에 결합할 수 있군.
- ⑤ ㄱ의 '타세요'는 교통수단을, ㅁ의 '타고'는 놀이기구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뜻에 차이가 있군.

10. 학급 모듬일기에 댓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친한 친구와 오해가 생겼어.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가끔 만나도 왠지 어색해.  
 생각해 보니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어떻게 풀어야 할지…….

1학년 0반 학급 모듬일기 중에서

- < 보기 >
- 관용적 표현을 활용할 것
  - 대조적 표현을 사용할 것
  - 고민을 해결해 줄 조언을 포함할 것

- ① 왜 망설이고만 있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 뭐라도 해 보렴.
- ② 우정은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정을 회복하기 어려워.
- ③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너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을 줄은 미처 몰랐어.
- ④ 나도 너처럼 그런 경험이 있었어. 참 힘들더라. 세월이 약이라고,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을 거야.
- ⑤ 오해가 상처를 주었다면, 고백은 상처를 낮게 해 줄 거야. 혼자서만 끔끔 앓지 말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봐.

11. <보기>는 청소년 신문에 투고할 글의 일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비싼 물건이라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왜 사람들은 굳이 고가품을 고집할까? 그 이유는 상품 자체의 질보다는 유명 상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 심리이다.

유명 상표의 제품이 대체적으로 품질이나 디자인이 좋다는 데 ㉡ 의견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유명 상표 제품을 쓰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다. ㉢ 그런데 유명 상표 제품만 선호하는 태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사람들은 값비싼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만족감을 얻는다고 한다. 즉, 상품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규정짓고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 가짜 상품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심지어 남의 기술을 도용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유명 상표만 선호하는 이들에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어보고 싶다.

- ① ㉠은 주어와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심리 때문이다.’로 수정한다.
- ② ㉡은 문맥상 ‘다른 의견’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돼야 하므로, ‘이견(異見)’으로 바꾼다.
- ③ ㉢은 앞 문장과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로 수정한다.
- ④ ㉣에 ‘유명 상표의 제품을 본뜬’을 넣어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 ⑤ ㉤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12.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 (1) 직접 질문할 때 쓴다.
- (2) 반어나 수사 의문을 나타낼 때 쓴다.
-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붙임1.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붙임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을 쓸 수도 있다.

<보기 2>

#12. 복도

영희 : ㉠ 시험 잘 봤어?

철수 : 응, 네가 정리해 준 자료 덕분에 아주 잘 봤어. 고마워.

영희 : 언어의 달인이 도와줬으니 당연하지.  
 그럼 뭔가 보답이 있어야겠지?

철수 : ㉡ 야, 친구끼리 그 정도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니니?

영희 : 그 정도라니, 넌 정말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애구나.

철수 : 은혜라고? 먼저 도와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너 참 ㉢ 훌륭한(?) 애구나.

영희 : 내 참, 기가 막혀서.

철수 : 그래, 알았어. 뭐 먹을래? ㉣ 햄버거야, 피자야?

영희 : (화가 나서) 됐어! 에이 기분 나빠. 나 간다. (퇴장한다.)

철수 : ㉤ 내가 좀 심했나? 어쨌든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 ① ㉠은 궁금한 것을 ‘철수’에게 직접 묻고 있으므로, (1)의 경우에 해당하겠군.
- ② ㉡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므로, (2)의 경우에 해당하겠군.
- ③ ㉢은 친구에 대한 빈정거림, 비웃음을 표시하므로, (3)의 경우에 해당하겠군.
- ④ ㉣은 각각 독립된 물음이므로, ‘붙임1’과 같이 물음표를 물음마다 써야겠군.
- ⑤ ㉤은 혼잣말로 의문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붙임2’와 같이 온점을 사용할 수도 있겠군.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굽이 돌아간  
백무선(白茂線)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A]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나)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고.  
해바라기 밭 해바라기들 새에 서서  
나도 해바라기가 되려고.

황금(黃金) 사자(獅子) 나룻  
오만(傲慢)한 왕후(王后)의 몸매로  
**진중일 짝소리 없이**  
삼복(三伏)의 염천(炎天)을 **노리고 서서**

[B]

눈부시어 요요히 **호접(胡蝶)**도 못오는 **백주(白晝)**!  
한 점 회의(懷疑)도 감상(感傷)도 용납치 않는  
그 불령(不逞)스런\* 의지의 바다의 한 분신(分身)이 되려고.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고.  
해바라기 밭으로 가서  
해바라기가 되어 싶으려고.

- 유치환,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고」 -

(다)  
산이라고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히 엮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 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싯대 개썩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더라도  
침녕쿨처럼 머루녕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 신경림, 「산에 대하여」 -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② 친숙한 소재를 통해 삶의 지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대조하여 대상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어의 반복으로 화자의 내면적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14.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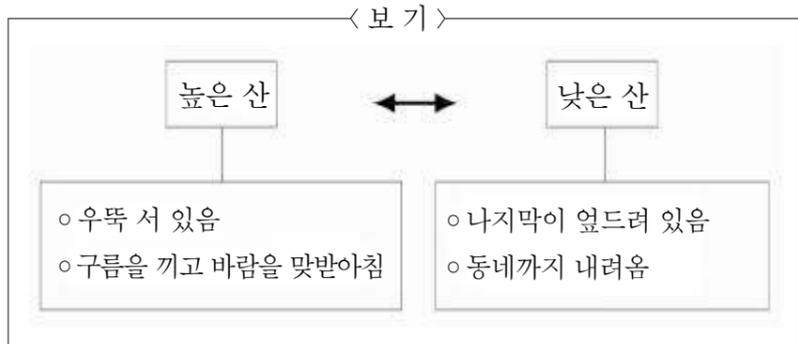
- ① [A]는 동적 심상이, [B]는 정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 ② [A]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나, [B]의 공간은 현실의 공간이다.
- ③ [A]는 과거를 회상하며, [B]는 미래를 전망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A]는 구체적 대상을 추상화하였고, [B]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 하였다.
- ⑤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 하고 있다.

15. (나), (다)의 시어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새에 서서'와는 달리 (다)의 '구경하고 섰다'에는 단절감이 드러나 있군.
- ② (나)의 '진중일 짝소리 없이'에는 (다)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와 달리 의연한 태도가 드러나 있군.
- ③ (나)의 '노리고 서서'에는 상황에 대한 대결 의지가, (다)의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에는 대상에 대한 포용적 자세가 투영되어 있군.
- ④ (다)의 '휘파람새'는 (나)의 '호접'과 달리 대상과의 거리가 가깝군.
- ⑤ (다)의 '가파른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나)의 눈부신 '백주'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군.

16. <보기>는 (다)의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높은 산’은 우뚝 서 있어서 외형적으로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겠군.
- ② ‘낮은 산’의 모습을 통해 소박하고 평범한 삶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군.
- ③ 나지막이 엎드려 있는 ‘낮은 산’은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를 의미할 수 있겠군.
- ④ ‘낮은 산’은 동네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 사는 맛을 알 수도 있겠군.
- ⑤ 구름을 끼고 바람을 맞받아치는 ‘높은 산’의 모습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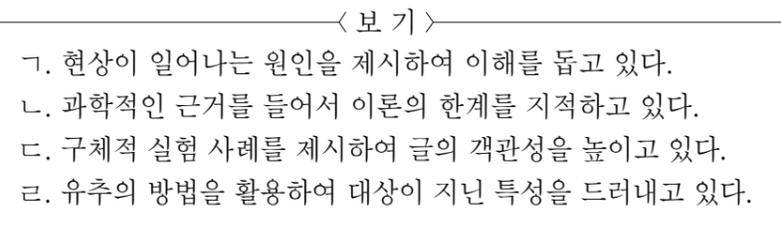
원에만 가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의사나 간호사가 자신의 혈압을 재는 행위를 보고 너무 긴장하거나 당황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같은 증상의 주된 이유가 의사나 간호사, 혹은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병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가운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시신경에서 흡수된 색이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호흡, 땀 분비, 심장 박동처럼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몸의 움직임을 관장한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교도소 안에 통제하기 어려운 수감자들을 위해 ‘핑크색 감방’을 설치하고, 수감자가 규율을 어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적어도 30분 동안 이 감방에 있게 했다. 10여 분이 지나자 수감자의 적대감, 공격적 행동 그리고 일반적인 폭력 성향이 약화됐다. 이 실험을 한 연구팀은 핑크색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심장 박동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했고, 사람의 에너지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국내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여러 색에 노출된 실험 대상자들의 뇌를 컴퓨터단층촬영(CT)했더니, 파란색 계열에 노출된 사람은 기억력을 활성화하는 두정엽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또한 2009년 1월 영국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파란색을 본 사람은 심장 박동수와 땀 분비량이 줄어 몸이 편안해지는 진정 작용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색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기업의 상품 판매 전략이나 범죄 예방, 질병 치료 등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17. 위 글의 설명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치원생들 앞에 빨간색 세모와 초록색 원이 그려진 큰 깃발을 세웠다. 선생님이 빨간색 원 그림을 내 보이면서, 이것과 같은 깃발 아래 모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 놀랍게도 어린이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빨간색 세모로 몰려든다. 이 실험은 어린이들이 형태보다 색을 우선적으로 인지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은 무엇일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강이며, 그 다음으로 노랑, 핑크, 보라, 주황 순이었다. 주로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는 따뜻한 색과 중성색계가 상위에 꼽혔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소아과 병원이나, 어린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상업 공간에는 빨강, 노랑, 핑크, 주황처럼 어린이가 좋아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주는 색을 칠하는 것이 좋다.

색채 응용 분야의 이론가였던 파버 비렌은 색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 인체에 생물학적으로 직접 작용한다고 말했다. 색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자. 평상시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막상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 보면 고혈압인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백의(白衣)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분류되는 환자의 약 30%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정상 혈압인 사람이 병

1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색은 사람의 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색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 ③ 색을 통해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 ④ 색은 어린이보다 어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⑤ 어린이들은 형태보다 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19. <보기>는 주택의 평면도이다. 위 글을 참고하여 집 꾸미기 계획을 세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 고등학생인 큰아들의 방에는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란색 계열의 책상과 책꽂이를 놓는다.  
 ② ② : 혈압 상승에 주의해야 될 할아버지의 방은 되도록이면 백색 계열의 벽지나 가구를 피하여 구성한다.  
 ③ ③ : 유치원생인 막내의 방에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노랑이나 핑크색의 침대와 옷장을 놓는다.  
 ④ ④ : 가족의 휴식 공간인 거실에는 파란색 계열의 양탄자를 깔아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⑤ ⑤ : 일찍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침실은 편안한 상태에서 숙면을 취해야 하므로 붉은색의 조명을 설치한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덕 위 크고 작은 동장이 이 말을 듣고 서산 밑 ㉠ 동네로 내려왔다. 오늘밤에 그 산개 — 지금에 와서는 크고 작은 동장도 그 개를 미친개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가 정말 미친개였다면, 벌써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제 다리를 물어뜯고 죽었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 를 지켰다가 때려잡자는 것이었다. ① 홀몸이 아니고 새끼를 뱀다면 그제 승냥이와 붙어 된 것일테니 그렇다면 그 이상 없는 보양제라고 하며, 때려 잡아가지고는 새끼만 자기네가 차지하고 다른 고길랑 전부 동네에서 나눠 먹으라는 것이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② 크고 작은 동장은 서쪽 산 밑 동네로 와, 차손이네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제각기 몽둥이 하나씩을 장만해 들게 했다. 그 속에 간난이 할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물론 그 신동이 개가 전과 달라졌다고는 생각지 않

았으나 이 개가 그 동안도 자기네 집 옆 방앗간에 와 자곤 했으면 으레 자기네 귀한 뒷간의 거름을 축냈을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이 기회에 때려잡아 버리리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한편 동네 사람 누구나가 그렇듯이 이런 때 비린 것이라도 좀 입에 대어 보리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서.

밤이 꺾이나 깊어 땅을 보러 갔던 차손이 아버지가 지금 막 산개가 방앗간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벌써 제각기 입 안에 비린내 맛까지 느끼며 발소리를 죽여 방앗간으로 갔다. 크고 작은 동장은 이 동네 사람들과는 꽤 먼 사이를 두고 떨어져 서서 방앗간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동이 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 나갈 틈을 엿보듯이 확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동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동이 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똥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 짐승이라도 새끼 똥 것을 차마?

이 때에 누구의 입에선가, 때레라! 하는 고향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 옆 사람들이 육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중 략)

이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뒤, 가을도 다 끝나고 이제 곧 겨울 나무 준비로 바쁜 어느 날, 간난이 할아버지는 서산 너머의 옛날부터 험한 곳이라고 해서 좀처럼 나무꾼들이 드나들지 않는, 따라서 거기만 가면 쉽게 나무 한 짐을 해 올 수 있는 ㉣ 여웃골로 나무를 하러 갔다. 손쉽게 나무 한 짐을 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길 한옆에 눈을 준 간난이 할아버지는 거기 흰 짐승의 새끼가 몽켜 있는 걸 보았다. 이게 범의 새끼나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잠든 강아지들이었다. 그리고 저만큼에 바로 신동이 개가 이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었다. ㉤ 양상하니 빼만 남아 가지고, 간난이 할아버지가 강아지끼로 가까이 갔다. 다섯 마린가 되는 강아지는 벌써 한 스무 날은 넉넉히 됐을 성싶었다.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는 다시 한 번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잠이 들어 있는 다섯 마리 강아지 속에는 틀림없는 누렁이가, 검둥이가, 바둑이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이견 놀랄 일이 아니라 웅당 그럴 일이라고, 그 일견 험상궂어 보이는 반백의 텃석부리 속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었다. 좀만에 그 곳을 떠나는 간난이 할아버지는 오늘 예서 본 일은 아무한테나, 집안 사람한테도 이야길 말리라 마음 먹었다.

이것은 내 중학 이삼 년 시절, 여름방학 때 내 외가가 있는 목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 때 간난이 할아버지와 김 선달과 차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에 일손을 쉬며 와 앉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한 이야기다. 간난이 할아버지가 주가 되어 이야기를 해 나가는 도중 벌써 수삼 년 전 일이라, 이야기의 앞뒤가 바뀐다든가 착오가 있으면 서로 바로잡고 빠지는 대목은 서로 보태 가며 하는 것이었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여웃골에서 강아지를 본 뒤로부터는 한층 조심해서, 누가 눈치 채지 못하게 나무하러 가서는 이 강아지들을 보는 게 한 재미였다.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범벅이었으나, 그 부스러기를 집안 사람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다. 아주 강아지가 밥을 먹게끔 됐을 때, 간난이 할아버지는 집안 사람들 보고 아무 곳 아무개한테서 얻어 오는 것이라 하며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내려왔다. 한동네 곱단이네도 어디서 얻어 준다고 하고 한 마리 안아다 주었다. 그리고 여웃골에서 그냥 갈 수 있는 절골 사는 아무개네도 한 마리, 서젯골 사는 아무개네도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다섯 마리를 다 안아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 끝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자기네 집에 기르는 개가 그 신둥이의 증손녀라는 말과 원체 종자가 좋아서 지금 목님이 마을에서 기르는 개란 개는 거의 다 이 신둥이의 증손이 아니면 고손이라고 했다. 크고 작은 동장네 두 집에서까지도 요새 자기네 개가 낳은 신둥이 개의 고손자를 얻어 갔다는 말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제는 아주 흰서릿발이 된 텃석부리 속에서 미소를 띄우는 것이었다.

- 황순원, 「목님이 마을의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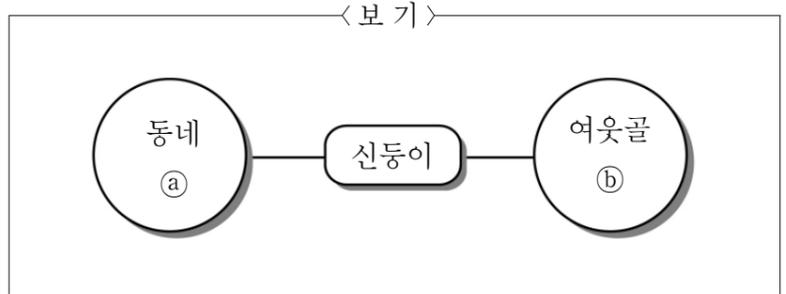
20. 위 글의 서술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자신의 체험을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 ② 부수적인 인물이 주인공의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과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 ④ 작중 서술자인 '나'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⑤ 시점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서 사건을 입체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21. 위 글의 '간난이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둥이의 번뜩이는 눈빛을 보고 무서움을 느꼈다.
- ② 신둥이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을 것이라 여겼다.
- ③ 신둥이 새끼들을 발견한 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④ 신둥이 새끼들에게 한 일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했다.
- ⑤ 신둥이를 잡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신둥이'와 두 공간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펍박받는 신둥이의 모습은 인간의 비정함을 드러낸다.
- ② a에서 b로 신둥이가 이동한 것은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③ b에서 새끼를 지키는 신둥이의 모습은 진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 ④ b에서 태어난 신둥이 새끼들의 모습은 화해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⑤ b에서 a로 내려와 번성하는 신둥이 새끼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23. <보기>를 통해 ㉠ ~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알레고리는 표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작가 자신이 표현하려는 바를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알레고리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이다.

황순원은 이 소설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숨기면서도 동시에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즉, 이념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해방기의 현실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고도로 응축하여 던지시 말했던 것이다.

- ① ㉠ : 이념 대립으로 인해 근거 없는 편견과 왜곡된 주장이 생산되기도 했음을 의미한다.
- ② ㉡ : 갈등과 대결의 원인 제공자이자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세력이 있었음을 뜻한다.
- ③ ㉢ : 몰인정하고 잔혹한 시대 상황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 ④ ㉣ : 극한으로 치달는 대립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⑤ ㉤ : 대립과 갈등 속에 고통 받았던 당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편견이란 고정 관념을 ㉠ 토대로 어떤 사회 구성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편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학습의 결과로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네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정치·경제적 갈등 또는 경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편견이 직업, 적당한 주택, 좋은 학교, 그리고 기타 바람직한 생산물에 대한 경쟁으로부터 유발되고, 이러한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관계된 집단의 구성원들은 상대방을 점점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상대방을 적대시하게 되고, 자신의 집단을 도덕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자신들과 상대방과의 경계선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음으로는 전위된 공격을 들 수 있다. 공격성은 신체적 고통이나 권태, 혹은 좌절과 같은 불쾌한 심리적 상황에서 생성된다. 그 중에서 ㉡ 좌절된 사람은 좌절의 원인을 공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 좌절을 초래한 원인이 너무 강한 존재일 경우에는 쉽게 공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좌절된 사람은 원인 제공자를 대신할 애꿎은 대리인을 찾기 마련이다. 이 대리인은 좌절된 사람보다 힘이나 지위가 약한 존재일 경우가 많다. 이렇듯 약한 대리인에 대한 공격이 편견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부적 원인이 아니라, 성격적인 원인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있다. ㉢ '권위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나쁜 것을 참지 못한다. 또한 지나칠 정도로 권위를 중시하며, 타인에게 가혹하고 의심이 많다. 이러한 성격적인 특징이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규범에 대한 동조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편견을 부모의 무릎에서 학습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문화의 규범과 사회의 구체적 편견에 동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조 현상에서 편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편견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대체로 인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된다. 그러므로 편견을 감소시키고 그것의 영향을 없애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편견을 타파하도록 학습시켜야 한다. 아동들은 편견과 이에 관련된 반응들을 부모, 교사, 그리고 친구들과로부터 습득한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들이 아동들을 편견 속에서 훈육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른 집단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서 편견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다른 집단 사람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은 친밀감 및 인식의 유사성을 높이고, 편견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경험하게 하여 편견을 타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재범주화'가 있다. 이는 '우리'와 '그들'의 경계선을 재조정하여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팀과 다른 학교 팀이 경기를 할 때는 다른 학교 팀에 대해 경쟁심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그 팀이 우리 도시를 대표하여 다른 도시 대표팀과 경기를 할 때는 경쟁심이 사라지게 되고 친밀감이나 동질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재범주화'를 통해 집단 간의 경계선을 재조정하는 것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24.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편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 ②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편견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 ③ 편견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한다.
- ④ 편견은 원인에 따라 긍정적 편견과 부정적 편견으로 나뉜다.
- ⑤ 내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편견은 자신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25.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좌절의 원인을 공격하려 한다.
- ② 외부의 자극에 대해 체념하기 쉽다.
- ③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참지 못한다.
- ④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
- ⑤ 약한 존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26.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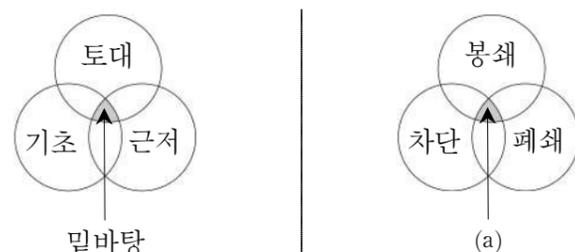
지리적으로 이웃한 'A시(市)'와 'B시(市)'는 'OO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였다. B시는 막대한 재화를 투입하여 상대를 누르고 유치에 성공하였다. A시 사람들은 B시의 성공을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B시 사람들이 지나치게 속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엑스포 성공을 계기로 B시는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A시 사람들의 B시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커져 갔다. 그런데 두 도시가 포함된 'C도(道)'가 다른 도 지역과 '국제 경기 대회' 유치를 위한 경쟁에 돌입하였다. 그에 따라 A시 사람들이 거리 홍보 및 각종 행사에 B시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전에 가졌던 상대에 대한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되었다.

- ① A시 사람들은 B시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군.
- ② A시 사람들의 B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서로 간의 경쟁에서 유발되었군.
- ③ A시 사람들의 성격적인 원인으로 인해 B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었군.
- ④ A시와 B시 사람들이 접촉 빈도를 늘려 친밀감을 높이면 편견이 감소될 수 있겠군.
- ⑤ 도 단위로 경계선이 재조정되면서 B시 사람들에 대한 A시 사람들의 편견이 줄어들었군.

27. <보기>는 ㉠에 관련된 설명이다. (a)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에서는 '밀바탕'이라는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초(基礎), 근저(根底)' 등의 단어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된 의미이다. 이처럼 단어 간에는 공통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예로 '봉쇄(封鎖), 차단(遮斷), 폐쇄(閉鎖)'를 들 수 있다.



- ① 굳다
- ② 막다
- ③ 베다
- ④ 멈추다
- ⑤ 부수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의 민속악을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 대표적인 음악을 꼽는다면 단연 ㉠ 판소리와 산조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의 애환과 사랑, 솔직한 감정을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진하게 토해 내는 것이 판소리라면 산조는 악기 소리로 풀어헤쳐 놓는 것이라 하겠다.

산조란 허튼 가락, 허드레 가락, 또는 흐드러진 가락이라는 뜻이다. 즉, 악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껏 흥겹게 연주하는 음악이 산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도 지방의 무속음악인 시나위 가락을 장단이라는 틀에 넣어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 형식이 산조이다. 시나위에서 비롯된 산조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 본질은 시나위와 같되 비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산조는 기악 독주곡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되 장구 반주가 따른다. 고수는 장구만 치지 않고 간간이 추임새를 넣어 연주자의 흥을 돋운다. 산조를 듣는 관객들도 악기의 연주 소리에 흥이 나면 추임새로 감동을 표현한다. 관객의 추임새를 통해 연주자는 더욱 흥을 내 연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판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 추임새는 연주자와 고수와 관객을 하나로 맺어 주는 우리 음악만의 소중한 기능을 한다.

이런 산조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향피리, 해금, 태평소, 단소, 아쟁 등 민속악에 쓰이는 거의 모든 선율악기마다 있다. 이 가운데 가야금산조가 제일 먼저 나왔고 이어서 거문고산조, 대금산조, 해금산조가 나왔으며 나머지는 그보다 늦게 나왔다.

산조를 연주할 때, 특히 가야금과 대금, 아쟁은 정악을 할 때 쓰는 악기보다 조금 작게 만든 산조악기를 사용한다. 악기 이름도 앞에 산조라는 말을 붙여 ㉢ 산조가야금, 산조대금 등으로 부른다. 산조악기는 산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속악을 연주할 때 쓰인다. 다소 느린 정악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빠른 민속악을 연주하기에는 불편한 탓일 것이다.

산조의 구성은 연주하는 사람과 악기, 주어진 시간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아주 느린 진양조장단으로 시작해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조금씩 빨라지다가 자진모리장단, 혹은 ㉣ 휘모리장단, 단모리장단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빠른 장단으로 끝난다. 듣는 사람을 신명의 극단으로 이끌어 올리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즉, 느린 진양조장단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현실의 상념에서 벗어나 가락의 세계에 빠져든다. 그때쯤 음악은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넘어가면서 육체를 벗어던진 영혼을 한바탕 출판으로 이끈다. 자신을 잊고 너울너울 마음속으로 춤을 추는 사이, 어느덧 가락은 숨 가쁜 자진모리장단을 타고 혈떡거리며 자지러진다. 이렇듯 산조 가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관객은 현실의 괴로움을 잊고 타는 듯한 희열에 빠져든다.

산조에는 여러 유파가 있다. 이는 산조가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배운 것을 재창조해 또 다른 자기 세계의 음악을 이루어내면 그대로 ㉤ 새로운 음악이 되는 것이 산조이다.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락의 보물 창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산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전문 예술가들이 시대에 맞는 음악적 감성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할 음악 형식이라 하겠다.

28. 위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산조의 개념과 형식                      ② 산조의 연주 방식
- ③ 산조의 구성과 장단                      ④ 산조의 유파별 특성
- ⑤ 산조에 사용되는 악기

29. 위 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조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 ② ㉡은 연주자에게 흥을 불어 넣지만, 연주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 ③ ㉢은 다소 느린 정악에서 사용하던 악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 ④ ㉣은 매우 빠른 장단으로 관객의 고조된 감정을 이완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전문 예술가인 스승과 제자 사이에 고정된 형식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30. 위 글의 ‘산조’와 <보기>의 ‘시나위’를 관련지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나위는 굿판에서 무당의 춤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숨씨가 발전해 이루어진 음악이며, 다악장 형식을 이룬 산조와는 달리 한두 악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악기로 엇갈리게 연주하는 시나위의 묘한 언어유희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한시도 놓아 주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변화 앞에서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몰아의 경지에 빠져든다.

- ① 산조와 시나위는 관객이 자기를 잊고 음악에 몰입하게 한다.
- ② 산조와 시나위는 춤과 어우러진 음악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작은 규모인 시나위와는 달리 산조는 여러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음악적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시나위에 비해서 산조는 비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 ⑤ 산조는 여러 악기가 어울려 연주되었던 시나위에서 개별 악기의 연주로 분화한 것이다.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행기가 뜨는 작용을 설명하는 베르누이의 원리는 익히 알려져 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공기나 물 같은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면, 그 유체로부터 받는 압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비행기는 날개의 윗면이 곡면이고 아랫면은 평면인 반원형에 가깝다.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위와 아래로 갈라지게 된다. 이때 위쪽으로 간 공기의 흐름은 반원의 둥근 면을 따라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공기는 직선으로 흘러가는데, 위쪽의 둥근 면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위쪽으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더 빠르다. 따라서 비행기를 상대적으로 압력이 약한 위쪽으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양력이다.

그런데 ㉡헬리콥터가 뜨는 원리는 약간 다르다. 양력을 이용하긴 하지만, 비행기의 유선형 날개가 양력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헬리콥터의 회전하는 날개는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이 ㉢생겼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력을 만들까? 헬리콥터는 회전날개의 각도를 달리하여 양력을 만든다. 이것은 차를 타고 실험해 볼 수 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옆의 유리창 밖으로 손을 약간만 내밀어 보자. 손을 수평으로 펴고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이면, 손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헬리콥터도 중앙 프로펠러의 날개 각도를 기울여 회전시킴으로써 프로펠러 위와 아래의 압력차로 양력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비행기처럼 전진하지 않고도, 날개 자체의 회전에 수직 이륙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의 프로펠러가 회전하게 되면, 헬리콥터의 본체는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는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중앙 프로펠러 윗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또 하나의 날개를 얹어 중앙 날개가 본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을 상쇄하도록 설계하였다. 1939년 이고르 시코르스키는 뒷부분에 꼬리 프로펠러를 수직으로 장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수직으로 서 있는 이 프로펠러가 본체의 회전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꼬리 프로펠러가 헬리콥터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영화의 헬리콥터 추격 장면에서 꼬리 프로펠러가 고장난 헬리콥터가 마구 회전을 하며 추락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흐르는 유체에 휘어진 물체를 놓으면 유체도 따라 휘면서 흐르는 ‘코안다 효과’를 이용하여 꼬리 프로펠러 없는 헬리콥터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헬리콥터에서는 꼬리 날개 대신 공기 흡입 장치를 달아서 공기를 빨아들인 후, 둥근 형태의 파이프를 따라 이 공기를 흘러가게 한다. 그러면 코안다 효과에 의해 파이프 모양을 따라 동그랴게 공기가 회전하면서 나간다. 이러한 공기의 회전력이 꼬리 프로펠러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과학의 원리들은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과학 원리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를 탐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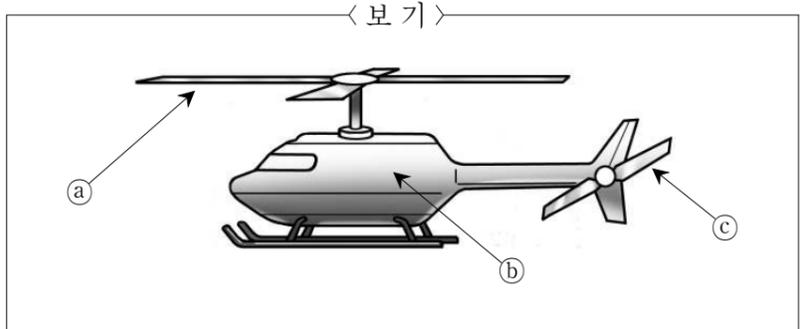
35.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코안다 효과의 응용
- ②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
- ③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 ④ 헬리콥터의 설계 원칙
- ⑤ 역학 이론의 변천 과정

36. ㉠,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회전 날개의 각도 조정으로 이륙한다.
- ② ㉠과 ㉡은 모두 본체의 전진 이동으로 양력을 만든다.
- ③ ㉠은 ㉡과 달리 이륙 과정에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④ ㉠과 달리 ㉡이 뜨는 데에는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과 달리 ㉡은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의 모양이 동일하다.

37. [A]를 참고하여 <보기>의 회전운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가 회전하면, 그 반작용으로 b가 회전하려 하겠군.
- ② a의 회전력이 c의 회전력을 상쇄시키겠군.
- ③ b가 회전하려는 방향은 a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이루어지겠군.
- ④ b가 회전하려는 힘을 상쇄시키는 것은 c의 회전력이군.
- ⑤ c의 회전은 b의 회전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군.

38.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옷에 얼룩이 생겼다.
- ② 당장 굶어죽게 생겼다.
- ③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 ④ 그녀는 이국적으로 생겼다.
- ⑤ 나에게 공짜로 집이 생겼다.

[39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추사(秋詞) 1

물외(物外)에 깨끗한 일이 어부생애(漁父生涯) 아니려나.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어옹(漁翁)을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사계절 흥(興)이 한가지나 추강(秋江)이 으뜸이라.

추사(秋詞) 2

수국(水國)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닷 들어라 닷 들어라

만경징파(萬頃澄波)\*를 실컷 누리 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추사(秋詞) 3

백운(白雲)이 일어나고 나무 끝이 흔들린다.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밀물에 동호(東湖) 가고 썰물에 서호(西湖) 가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백빈홍료(白蘋紅蓼)\* 난 곳마다 좋은 경치로다.

추사(秋詞) 4

기러기 떠 있는 밖에 못 보던 뾰 보이는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라

남시질도 하려니와 경치에 취한 것이 이 흥(興)이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 석양이 비치니 천산(天山)이 금수(錦繡)로구나.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만경징파(萬頃澄波) : 넓고 넓은 맑은 물결

\* 백빈홍료(白蘋紅蓼) : 흰 마름꽃과 붉은 여뀌꽃

(나)

오동(梧桐) 서리달이 사경(四更)에 돌아오니

천암만학(千巖萬壑)\*이 낮인들 그려할가

호주(湖洲) 수정궁을 뉘라서 옮겨 온고

은하를 띄워 건너 광한전의 올랐는듯

짜 맞은 늙은 술은 남시대에 세워두고

그 아래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던져두니

홍료화(紅蓼花) 백빈주(白蘋洲) 어느 사이 지났길래

환벽당(環碧堂) 용(龍)의 못이 뱃머리에 달아세라.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반공(半空)의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가을 칠월(秋七月)이 좋다하되

팔월 보름밤을 모두 어찌 칭찬하느고

고운 구름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하늘의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謫仙)이 야단스럽구나.

- 정철, 「성산별곡」 -

\* 천암만학(千巖萬壑) :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

\* 소선(蘇仙) 적벽(赤壁) :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다)

미단이에 불벌레 와 부딪는 소리가 째릉째릉 울린다. 장마 치른 창호지가 요즘 며칠 새 팽팽히 경겨진 것이다. 이제 틈나는 대로 미단이 새로 바를 것이 즐겁다.

미단을 아이 때는 종이로만 바르지 않았다. 녹비\* 끈 손잡이 옆에 ㉠ 과꽃과 국화와 맨드라미 잎을 뜯어다 꽃 모양으로 둘러놓고 될 수 있는 대로 투명한 백지로 바르던 생각이 난다. ㉡ 달이나 썩 밝은 밤이면 밤에도 우련히\* 붉어지는 미단이엿 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긴 가을밤 꿈의 실마리를 삼는 수도 없지 않았다.

과꽃은 가을이 올 때 피고 국화는 가을이 갈 때 이운다. 피고 지는 데는 선후가 있되 다 마찬가지로 가을꽃이다.

가을꽃. 남들은 이미 황금열매에 머리를 숙여 영화로울 때, 이제 뒷산머리에 서릿발을 쳐다보면서 겨우 봉오리가 트는 것은 처녀로 치면 혼기가 훨씬 늦은 셈이다. 한되는 표정, 그래서 건강한 때도 이윽히 들여다보면 한 가닥 감상이 사르르 피어오른다.

감상이긴 ㉢ 코스모스가 더하다. 외래화여서 그런지 그는 늘 먼 곳을 발돋움하며 그리움에 피고 진다. 그의 앞에 서면 언제든지 영너취미의 슬픈 로맨스가 쓰고 싶어진다.

㉣ 과꽃은 흔히 마당에 피고 키가 낮아 아이들이 잘 꺾는다. 단춧구멍에도 꽃고 입에도 물고 달아 달아 부르던 생각은 밤이 긴 데 못 이겨서만 나는 생각은 아니리라.

차차 나이의 무게를 느낄수록 다시 보이곤 하는 것은 그래도 국화다. 국화라면 으레 진척사를 쳐드는 것도 싫다. 고완품이 아닌 것을 문헌치레만 시키는 것은 그의 이슬 머금은 생기를 빼앗는 것이 된다.

요즘 전발처럼 너무 인공적으로 피는 전람회용 국화도 싫다. 장독대나 울타리 밑에 피는 재래종의 황국이 좋고 분에 피었다더라도 서투른 선비의 손에서 핀, 떡잎이 좀 붙은 것이어야 가을다워 좋고 자연스러워 좋다.

㉤ 국화는 사군자의 하나다. 그 맑은 향기를 찬 가을 공기를 기다려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고맙고, 그 목필로 주욱쭈 그을 수 있는 가지와, 수묵 그대로든지, 고작 누른 물감 한 점으로도 종이 위에 생운을 떨치는 간소한 색채의 꽃이니 빗물 어룡진 가난한 서재에도 놓아 어울려서 더욱 고맙다.

국화를 위해서는 가을밤도 길지 못하다. 꽃이 이울기를 못 기다려 물이 언다. 뒷목에 들여놓고 덧문을 닫으면 방안은 더욱 향기롭고 품지는 못하되 꽃과 더불어 누울 수 있는 것, 가을밤의 호사다. 나와 국화뿐이려니 하면 귀뚜라미란 놈이 화분에 묻어 들어왔다가 울어대는 것도 싫지는 않다.

㉥ 가을꽃들은 아지랑이와 새소리를 모른다. 찬 달빛과 늙은 벌레 소리에 피고 지는 것이 그들의 슬픔이요 또한 명예이다.

- 이태준, 「가을꽃」 -

\* 녹비(鹿皮) : 사슴의 가죽

\* 우련히 : 형태가 약간 나타나 보일 정도로 희미한

39.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상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 ② 화자의 현실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⑤ 현실을 벗어나 인생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있다.

40. (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비유의 방식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객관화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소재를 열거하여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4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는 쓸쓸함을, ㉡는 정겨움을 환기한다.
- ② ㉠는 만족감을, ㉡는 아쉬움을 자아낸다.
- ③ ㉠는 지향하는 바를, ㉡는 현실적인 장애를 나타낸다.
- ④ ㉠, ㉡는 모두 대상이 지닌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⑤ ㉠, ㉡는 모두 현실에서 느끼는 화자의 한계를 드러낸다.

42.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정궁’은 가을밤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군.
- ② ‘은하를 띄워 건너’는 화자의 고조된 흥취를 보여주는군.
- ③ ‘던져두니’는 한가하고 여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군.
- ④ ‘용’과 ‘학’을 통해 석양에 피리를 부는 흥겨움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적선’이 물에 빠진 모습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군.

43. <보기>를 참조하여 ㉠ ~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작가 이태준은 그의 저서 『문장강화』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연을 본다면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정이 쏠리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정이 쏠리면 감상(感想)이 일어날 것이요, 감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말하였다.

- ① ㉠ : 꽃잎들을 미닫이에 붙여 바르던 기억을 떠올리며 가을밤의 서정적인 감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 : 늘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코스모스를 숙명적인 그리움을 안고 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③ ㉢ : 마당에 피고 키가 작아 아이들에게 더 친숙했던 과꽃을 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고 있다.
- ④ ㉣ : 국화를 가난한 서재에 어울리는 간소한 색채를 지닌 꽃으로 표현하면서 소탈한 삶의 자세와 연관을 짓고 있다.
- ⑤ ㉤ : 찬 달빛과 늙은 벌레 소리에 피고 지는 가을꽃들의 모습에서 삶의 애상감에 빠져들고 있다.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 있었다면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의 슬퍼함을 짐작하겠다. 이후에 이런 연고가 또 있으면 내가 처치하여 너희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하고 나왔다. 이때 흥녀 허씨가 창 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흥계를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 제 자식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껌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넣고 나왔다. 좌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것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마침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왔다. 허씨가 좌수를 보고 정색하며 혀를 차는지라, 괴이하게 여긴 좌수가 그 연고를 물었다.

“집안에 불측한 변이 있으나 낭군은 필시 첩의 모해라 하실 듯하기에 처음에는 발설치 못하였습니다. 낭군은 친어버이라, 나오면 이르고 들어가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이 많으나, 내 또한 친어미가 아니므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아니하기에 몸이 불편할까 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를 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치 못하여 찢찢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마음에 놀라움이 컸지만, 저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좌수는 크게 놀라 이에 부인의 손을 이끌고 여아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추어 보았다. ㉠ 이때 장화 자매는 잠이 깊이 들어 있었으니, 허씨가 그 피 묻은 쥐를 가지고 날뛰었다. 용렬한 좌수는 그 흥계를 모르고 놀라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오.”

하며 고심하였다. 이 때 흥녀가 하는 말이,

“이 일이 매우 중난하니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이 하면, 남은 이런 줄은 모르고 첩이 심하여 애매한 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였다고 할 것이요, 남이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어 모르는 게 나을까 합니다.”

하고 거짓 자결하는 체하니, 저 미련한 좌수는 그 흥계를 모르고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면서,

“그대의 진중한 덕은 내 이미 아는 바이니, 빨리 방법을 가르치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하며 울거늘, 흥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원을 이룰 때가 왔다.’

하고, 마음에 기꺼워하면서도 겉으론 탄식하여 하는 말이,

“내 죽어 모르고자 하였더니, 낭군이 이토록 과념하시니 부득이 참거니와, 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장차 문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세양난이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였다. 좌수는 망처의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하나, 일변 분노하여 처치할 묘책을 의논하니, 흥녀는 기뻐하며,

“장화를 불러 거짓말로 속여 저희 외삼촌댁에 다녀오게 하고, 장쇠를 시켜 같이 가다가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좌수가 듣고 옳게 여겨 장쇠를 불러 이리이리하라고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중간 줄거리]** 장화는 장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니의 죽음을 슬퍼한 흥련 역시 자결한다. 장화 흥련 자매는 원귀가 되어 부사를 찾아와 원한을 풀어 줄 것을 하소연한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물어 말하기를,  
 “네 말이 그러할진대,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족히 알겠다.”  
 흥녀 대답하여 여쭙기를,  
 “소녀의 골육이 아닌 고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깊이 장지하였다 가져왔나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 드리니 부사가 분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분부하기를,  
 “말과 사실이 어긋남이 없으나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히 설명할 수 없으니 내 다시 생각하여 처리할 것이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그날 밤에 흥련의 형제가 완전히 부사 앞에 나타나서 절하고 여쭙기를,  
 “소녀들이 천만 의외에 밝으신 사또를 만나서 소녀 자매의 누명을 설원할까 바랐었는데, 사또께서 흥녀의 간특한 꾀에 빠지실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여쭙기를,  
 “일월같이 밝으신 사또는 깊이 통촉하십시오. 옛날에 순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의 뼈에 사무친 원한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이거늘, 이제 사또께서 잔악한 계집의 말을 곧이들으시고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나이까.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흥녀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녀 자매를 천만 공측히 여기셔서 법을 밝혀 주시고, 소녀의 아버지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흥녀의 간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니 충분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흥련의 자매는 일어나 절하고 청학을 타고 반공에 솟아 갔다.  
 - 작자 미상, 「장화홍련전」 -

4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ㄱ. 반어적 표현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ㄷ. 사실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서 사건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 ㄹ. 인물 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5. 위 글의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쇠’는 ‘장화’를 미워하여 음모에 가담했다.
- ② ‘좌수’는 자식의 생명보다는 가문의 체면을 중시한다.
- ③ ‘부사’는 ‘흥녀’의 증거물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 ④ ‘장화’ 자매는 ‘부사’의 도움으로 원통함을 해소하려고 한다.
- ⑤ ‘흥녀’는 과장된 행동을 통해 ‘좌수’의 결단을 유도하였다.

46. [A],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상대방을 치켜세우며 비위를 맞추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상대방을 비난하며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 ③ [A]는 고사를 인용하여, [B]는 권위자의 견해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 ④ [A]는 상황의 시급함을 들어, [B]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며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⑤ [A], [B]는 모두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B]

47. <보기>는 ㉠의 상황에서 ‘장화’가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장화 : (놀라 탄식하며) ( ㉠ ) (이)라더니, 이게 무슨 변고인가?

- ① 청천벽력(靑天霹靂)                      ② 새옹지마(塞翁之馬)
- ③ 인과응보(因果應報)                    ④ 소탐대실(小貪大失)
- ⑤ 오비이락(烏飛梨落)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단어나 문장들의 관계를 정의한 용어들을 접할 때, 그 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들 사이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상하관계, 함의(含意), 전제(前提)가 있다.

먼저 상하관계와 함의를 살펴보면,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상하관계이고, 함의는 한 문장의 의미가 다른 문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이다. 곧 상하관계는 단어 사이의 포함관계이고 함의는 문장 사이의 포함관계이다.

- (1) A. 돌이가 유리창을 깨뜨렸다.
- B. 유리가 깨졌다.

(1)의 A에는 B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장의 의미가 다른 문장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을 함의라고 한다. 따라서 함의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이것을 진리조건으로 설명하면, (1)의 A가 참일 때 반드시 B도 참이면, A는 B를 함의한다고 말한다. 곧 (1)에서 돌이가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 사실이면 유리창이 깨진 것도 반드시 사실이다. 따라서 (1)의 A는 B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함의는 두 문장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관계인데 반해, 전제는 ㉠ 하나의 문장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른 명제를 가리킨다.

대체로 서술문은 무엇인가를 단언(斷言)하기 위하여 쓰인다고 할 수 있다.

- (2) 순이는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라는 문장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을 할 수 있는 문장이다. 다시 말하면, 과연 순이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2)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단언은 그것이 직접 참 또는 거짓의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음 (3)을 보자.

- (3) 순이는 돌이와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3)의 모문(母文)은 앞의 문장 (2)와 같기 때문에 직접 참 또는 거짓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명제인 ‘순이는 돌이와 결혼했다.’는 이미 사실로 인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장을 서술할 때 처음부터 참이라고 인정된 명제를 전제라고 한다. (3)이 의미하는 바는 모문의 내용으로, 순이가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곧 참 또는 거짓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모문의 내용이다.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명제인 ‘순이는 돌이와 결혼했다.’는 화자가 그 문장을 말할 때 이미 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3)의 전제이다. 전제는 이와 같이 어떤 문장 속에 이미 참이라고 인정되어 있는 명제를 가리킨다.

그런데 (3)에서 ‘순이는 돌이와 결혼했다.’는 내용이 거짓이면 즉, 전제 자체가 거짓이면 이때의 (3)은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무가치한 문장이 된다. 어떤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그 문장 안에 포함된 명제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문장이 성립되며, 이때에 비로소 그 문장 속의 명제는 전제가 될 수 있다.

함의와 전제는 아주 유사한 개념이지만 부정(否定)의 방법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곧 전제를 가진 문장은 부정하여도 같은 전제를 갖는다. 그러나 함의를 가진 문장을 부정하면 함의가 달라진다. 바꾸어 말하면, 전제가 부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하여 함의는 부정하면 두 문장 사이의 함의관계가 사라진다.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상하관계와 전제는 두 문장 간의 의미관계이다.
- ② 함의는 문장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관계이다.
- ③ 전제는 문장 속에 참이라고 인정되는 명제이다.
- ④ 함의와 전제는 부정의 방법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 ⑤ 상하관계는 단어, 함의는 문장 사이의 포함관계이다.

49. ㉠이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 ① 영희는 어제 산 책을 읽었다.
- ② 철수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 ③ 그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는 키가 크다.
- ④ 김 순경이 보석을 훔친 도둑을 붙잡았다.
- ⑤ 나는 저녁 늦게 간식 먹은 것을 후회한다.

5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 문장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A나라의 왕은 미혼이다.

- ① ‘A나라에 왕이 있다.’는 ㉠의 전제가 된다.
- ② ㉠이 거짓이면 ‘A나라에 왕이 있다.’도 거짓이 된다.
- ③ ㉠은 ‘A나라의 왕은 배우자가 없다.’라는 문장을 함의하고 있다.
- ④ ㉠이 거짓이면 ㉠과 ‘A나라의 왕은 배우자가 없다.’라는 문장의 함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A나라에 왕이 있다.’라는 사실이 거짓이면 ㉠은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무가치한 문장이 된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